부끄러운 동양 최대 인공 해수욕장

해남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 이용객 불만 폭주

흙탕물 수질에·서비스·시설 엉망…바가지까지

'수질 엉망, 서비스 엉망, 시설 엉망, 바가지 요금까지…'

지난 18일 해남 화원관광단지 내에 문을 연 동양 최대 인공 해수욕장인 '블랑코 비치'에 대한 방문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바다에 수중보를 쌓아 조성된 해수욕장의 수질은 흙탕물에 가깝고, 개장을 서두른 탓에 진입도로 등 곳곳은 아직도 공사중이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선전문구도 사실과 달라 오후 6시면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9일 친구와 함께 블랑코 비치를 찾은 정모(34·광주시 남구)씨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날 오전 해남 땅끝을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블랑코 비치를 찾은 정씨는 우선 주차료로 2천원을 지급했다. 도로공사가 한창인 진입로를 지나 해수욕장으로 들어선 정씨는 그늘진 곳이 없어 해수욕장에 설치된 비치파라솔 밑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관리인이 찾아와 사용료 1만원을 요구했다. 잠시 머물 생각이었던 정씨는 30℃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냈다.

친구와 해수욕을 즐기려던 정씨는 흙탕물에 가까운 바닷물을 보고 또 한번 실망했다. 흰색 셔츠를 입고 물에 들어갔던 정씨의 옷은 흙탕물에 염색을 한 듯 황토 빛으로 변했다.

결국 물놀이마저 포기한 정씨는 비치파라솔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다. 오후 6시가 되자, 사전 예고나 안내도 없이 갑자기 모두 퇴장하라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온 것.

정씨는 "대여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해수욕장 이용 시간이 끝났다고 모두 나가라고 하더라"면서 "대여 당시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이용시간이 24시간이라는 말만 듣고 왔는데 사기를 당한 기분마저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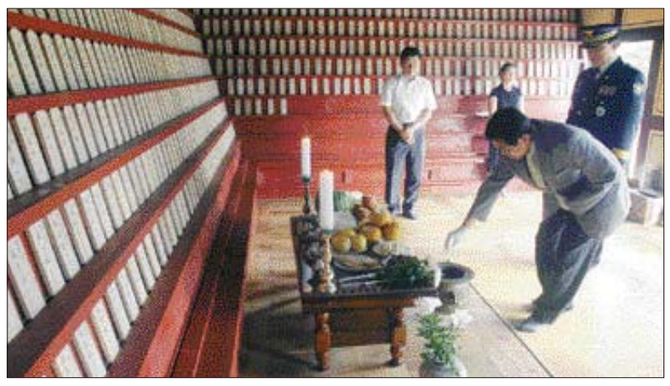
정씨와 같은 날 블랑코 비치를 방문했던 이모(41·서울)씨도 불만은 마찬가지.

이씨는 "언론 등에서 한국의 두바이니, 동양 최대의 인공해수욕장이니 호들갑을 떨어 찾아왔는데,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관리요원도 불친절하고, 최악의 하루였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해남군 관계자는 "당초 준비가 미흡한 듯해 수차례에 걸쳐 개장시기를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관광단지 계획 수립 후 20년이 다 되도록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 관계자는 "처음 개장한 탓에 부족한 점이 많고, 방문객들의 불만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곡성 '충혼당' 위패 봉안

곡성군 상이군경회(회장 김정수)가 지난 18일 오곡면 승법리 충의탑에서 조형래 곡성군수와 유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당에 55신위 위패를 추가로 모시는 봉안식을 가졌다. 이로써 충혼당에 봉안된 위패는 1천298기로 늘어나게 됐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닭고기 먹으면 관광지 입장료 공짜

해남 '닭요리촌 개장' 기념 관광지 무료입장 등 이벤트

해남군이 닭요리 촌을 조성하고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대흥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해남읍 돌고개 닭요리 촌 조성 기념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관광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돌고개 닭요리 촌에서 관광객이 식사를 할 경우 땅끝 전망대와 우수영 관광지 무료 입장과 함께 공룡화석지 50%, 두륜산 케이블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군은 올해 초 먹을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화장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닭요리 촌을 만들었다.

해남군은 닭요리 촌에 이어 2011년까지 대흥사 보리밥과 사찰 음식촌, 마산면 육일시 한우촌, 땅끝 활어회 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함평 '미니 밤호박' 제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 최대 '미니 밤호박' 생산 유통법인인 함평군 '호박사랑' 조합원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단호박 선별 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미니 밤 호박은 저장실에서 10일 가량의 숙성을 거쳐 세척 및 포장을 한 뒤 유명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고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고향 문화 체험해 보세요"

장흥·담양 등 일부 지자체 '유적지 순례' 등 캠프 운영

전남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출향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하계 수련캠프를 운영한다.

장흥군은 오는 8월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향우 2~3세대 청소년이 참가하는 '고향방문 하계 수련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여름방학과 물축제(7·30~8·3) 기간동안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고향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이며 선착순으로 50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문의 (061-860-0540, 863-2313).

프로그램은 물축제 체험과 토요시장 방문, 병영체험, 관광유적지와 천문과학관 탐방, 장흥댐 및 물문화관 관람, 갯벌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생태체험 위주로 꾸며진다.

담양군도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고향 유적지 순례를 실시한다.

유적지 순례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소쇄원 등 관내 유적지를 둘러보고 죽제품 만들기, 한과체험 등을 하게 된다.

담양군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필, 시, 그림 등을 공모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나주시의회 파행 한달…부작용 속출

정례회 열지도 못하고 폐회…정기 인사 불발

나주시의회 파행사태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집행부 정기 인사가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의장단 구성에 나섰으나 민주당 측과 무소속 의원 간 갈등으로 한달이 다되도록 파행을 빚고 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곳은 나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의장단 구성 불발에 따라 지난 3일 소집 공고된 정례회는 한번도 열리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으며 집행부 조직 개편과 인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원 구성 차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강인규 의원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에 배정했으나 특정인을 부의장에 선출하기 위해 표를 몰아달라는 요구는 야합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무소속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신정훈 시장 개입설'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무소속 양측간 불신이 심화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완도해경, 피서철 관광지 집중 점검

완도 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안전시설에 대한 중점 검검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수상레저 기구의 안전검사 여부를 비롯해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 ▲이용객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교육 실시여부 ▲14세 미만자 보호자없이 승선행위 ▲영업구역 이탈 ▲시간외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이달부터 9월까지를 '슈퍼태풍 내습'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해상 종사자와 해양 레저객을 대상으로 슈퍼태풍 내습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사전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광산 '언제라도 민원센터' 종합 거점 민원센터로 육성

광산구가 야간에도 민원 해결이 가능한 하남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를 종합 거점 민원센터로 육성한다.

광산구는 3만2천여 세대 규모의 수완·하남 2지구 입주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언제라도 민원센터에 '미니 구청' 역할을 부여해 9만여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그동안의 성과와 해결과제 등을 종합해 '6개월 운영평가 보고회'를 다음달 개최하고 언제라도 민원센터를 신도심 지역의 종합 거점 민원센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